

K P S M A G A Z I N E
KPS STORY

447번째 만남

2024년 1월과 2월



퀀텀 점프처럼
한 단계 도약하는 2024년
(KPS STORY)가 응원합니다!





PROLOGUE

아프리카 서식 원숭이 갈라고는
뛰어난 점프력을 소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갈라고의 점프력은 웅크린 자세에서 나온다고 하는데요.
몸을 움츠리고 있는 동안
에너지를 힘줄에 저장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물리학의 퀸텀 점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원자를 구성하는 전자는
에너지가 낮은 상태에서는 뛰어오르지 않지만,
충분한 에너지가 주어지는 순간 비선형적으로 크게 도약하는데요.
이처럼 비약적인 성장의 배경에는
에너지를 응축시키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희망찬 청룡의 해, 차곡차곡 쌓은
여러분의 에너지가 눈부시게 도약해
결실로 이어지길 <KPS STORY>가 응원하겠습니다.

KPS MAGAZINE **KPS STORY**

2024. January+February
Vol. 447

CONTENTS

<p>04 CEO Letter 위기는 지속성장 기업으로 나아가는 기회와 도전입니다</p> <p>08 Special Essay 어느 순간 때가 되면 터져 오른다 퀀텀 점프</p> <p>12 현장에서 만나요 가스터빈 국산화의 중심! 김포사업소</p> <p>16 우리 가족 나들이 발행인 김홍연 편집인 정영우 발행처 한전KPS (58326) 전라남도 나주시 문화로 211 전화 061-345-0114 팩스 061-345-0115 기획·디자인 경성문화사(02-786-2999) 기획·편집·진행 김정필, 한장봉, 김영권</p> <p>한전KPS 웹진은 www.kps.kr 또는 아래 QR코드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p> <p></p> <p>본 사보는 환경보호를 위해 친환경 용지· 인쇄로 제작됐습니다.</p> <p>※ 모든 촬영은 방역수칙을 준수해 진행했습니다.</p>	<p>30 여행탐방 새로 꿈꾸며, 다시 도전하며 2024년 설렘과 희망을 품은 여행</p> <p>32 트렌드 인사이트 스마트 워크로 능률 UP, 효율 UP!</p> <p>34 직장의 신 새로운 업무도 유연하게 일을 리드하는 노하우!</p> <p>36 건강한 홈(Home)밥 봄이 되면 가장 반가운 손님! 새콤달콤 딸기의 매력</p> <p>40 KPS NEWS</p> <p>46 함께 하는 기쁨</p> <p>47 쿱스 밸런스</p>
---	--

‘위기는 지속성장 기업으로 나아가는 기회와 도전입니다’

사랑하는 한전KPS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은 우리 회사가 사창립 40주년을 맞는 해로 우리 모두 새로운 출발선에서 지속가능한 기업으로의 도약을 위해 각오를 더욱 단단히 다져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기후위기와 함께 유럽과 중동에 일어난 전쟁 등 세계 에너지 시장을 둘러싼 위기 상황은 2024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탄소중립을 향한 에너지믹스의 재정립은 발전 정비 시장의 구조를 급격히 변화시키고 있으며,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석탄발전소 비중을 대폭 감축한 만큼 우리의 매출 신장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구나 한전의 경영위기로 인한 발전사의 진축경영 돌입과 발전정비시장의 경쟁 심화는 우리를 상시 비상경영 체제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욱 강력하게 추진될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 혁신 방침으로 재무성과 제고와 관리체계 개선에 전사적 역량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2024년도 끊임없는 위기가 우리에게 몰려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위기는 준비하지 않은 자에게는 고난으로, 준비한 자에게는 기회로 다가온다’고 합니다. 즉 준비한 자에게 위기는 생존에 대한 위협이 아닌 도전입니다. 결국 우리가 철저히 준비한다면 위기는 한전KPS가 지속성장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와 도전이 될 것입니다. 이에 2024년 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하니 본사 및 전 사업소에서는 철저히 이행해 주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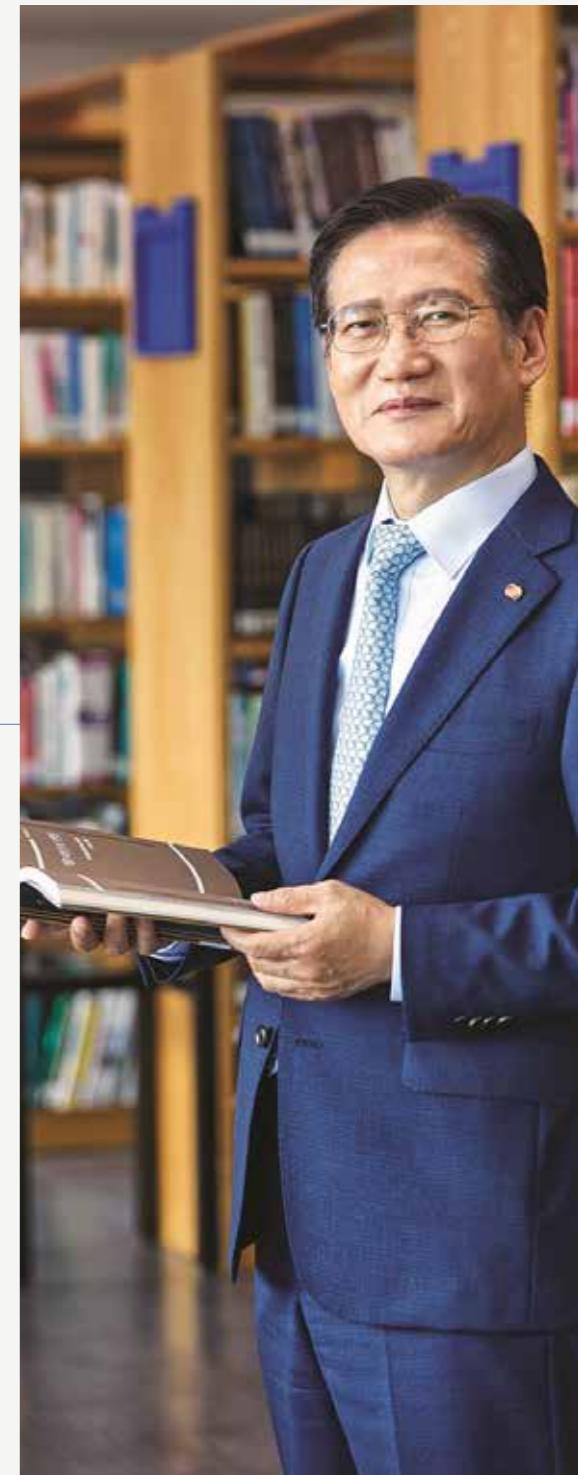
첫째, 국민과 정부의 눈높이에 맞는 최고의 공기업으로 질적 성장 점프업(Jump-Up)을 이뤄내야 합니다! 공기업의 공공성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경영 성과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즉 구체적인 성과 창출을 기반으로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고 정부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업무 추진의 질적 고도화를 통해 구체적 성과를 창출해야 하고 경영평가를 통해 우리의 객관적인 수준과 위치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는 효율성 중심의 경영혁신과 혁신적인 업무 프로세스 고도화를 통해 경영 및 재무성과의 질적 성장을 이뤄낸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지속되면 전사의 모든 조직이 지속성장과 질적 성장 점프업(Jump-Up)을 통하여 최고의 공기업을 달성하게 될 것입니다.

2024년은 한전KPS 직원 모두가 공기업의 기본인 청렴과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국민과 정부의 기대에 부합하는 질적 성장을 이루어 공기업을 선도하는 한해를 만들기 바랍니다.



66
위기는 지속성장 기업으로 나아가는
기회와 도전입니다

둘째, 해외정비 수출사업화를 선도해야 합니다!

먼저 원전의 경우, '원전 정비서비스' 수출 활동을 강화해 정부의 원전수출산업화 정책에 적극 동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2024년은 원전 수출을 위한 '팀 코리아'의 일원으로 원자력 발전소 보수 유지 정비 분야에 있어서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원년이 되어야 합니다. 전 세계 원전 주요 운영사 및 제작사와의 협력을 통해 정비서비스 수출 확대에 집중해야 하며, 원전 수출 전략국가 10개국을 대상으로 기술 홍보와 대규모 설비 개선 수주 등 가동원전 사업 확대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원전수출산업화 정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글로벌 핵심인력 양성도 시급히 추진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 밖에도 기존 O&M 중심의 해외사업도 다변화를 통해 주력사업 수주에 더욱 집중해야 하며, LNG 복합설비와 친환경·신재생의 그린에너지(Green Energy)를 기반으로 성능개선과 복구사업 등 해외사업 다각화를 통해 신성장동력 창출에도 역량을 쏟아야 합니다.

해외수출과 사업 다각화는 우리의 지속적인 미래성장 동력과 직결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해외정비 수출 사업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셋째, 안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안전은 고객의 신뢰를 얻는 기본이며, 우리의 지속성장을 위한 발판입니다.

우리 회사의 많은 직원들이 고위험 작업환경에 상시 노출되는 만큼, 현장 중심의 안전경영시스템을 통해 기본과 원칙에 충실향 안전 문화를 정착해야 합니다. 개인의 안전이 회사의 안전이며 더 나아가 '안정적 전력공급'이라는 고객과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하는 길임을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안전이 최고의 가치라는 신념으로 안전의식을 체화해 안전하고 신뢰받는 한전KPS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빛은 그 자리에 있지만

항상 변해서 늘 새로운 것에

대비해야 한다’라는

‘광휘일신(光輝日新)’의 격언처럼

어떤 위기에서도 항상 새롭게 도전하고

혁신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상생과 협력의 노사문화는 위기 극복에 가장 큰 힘입니다!

위기에 대한 준비가 아무리 철저해도 노사관계가 대립과 분열로 치닫는다면 위기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과 전력그룹사의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한 자구노력에는 많은 희생과 양보가 필요합니다.

결국 우리 앞에 놓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협력을 통한 상생의 노사문화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상생과 협력을 기본으로 한 동반자적 노사관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지난 36년간 만들어 온 성숙한 노사문화를 바탕으로 올해도 노사가 한마음 한뜻으로 화합해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성장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길 당부드립니다.

사랑하는 한전KPS 가족 여러분!

2024년은 우리가 사창립 4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수없이 많은 위기를 극복한 지난 40년의 저력을 바탕으로 지속성장 기업으로 도약하는 미래 100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한전KPS 모든 임직원은 ‘빛은 그 자리에 있지만 항상 변해서 늘 새로운 것에 대비해야 한다’라는 ‘광휘일신(光輝日新)’의 격언처럼 어떤 위기에서도 항상 새롭게 도전하고 혁신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철저히 준비해 우리에게 닥칠 위기를 지속성장 기업으로 도약하는 기회와 도전으로 만듭시다.

2024년에는 한전KPS 임직원 모두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성장 기업으로 한 걸음 더 나가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2월

사장 김홍연

어느 순간 때가 되면 터져 오른다

퀀텀 점프 (Quantum Jump)

'퀀텀 점프(Quantum Jump)'는 양자역학에 관한 물리학 용어다. 더 이상 끊을 수 없는 최소량의 에너지를 의미하는 양자(Quantum)가 에너지를 흡수해 다른 상태로 변화할 때, 연속적으로 서서히 변하는 것이 아니라 급속도로 도약(Jump)하는 현상을 설명한다. 퀀텀 점프는 최근 경제와 경영 분야에서 더 많이 회자된다. 틀을 깨고 단번에 도약하는 기업을 빛내거나, 어떤 성장이 한번에 폭발하듯 실현될 때 퀀텀 점프라 칭한다.

글. 곽한나 사진. 필립스, 도요타, 곱표 등

참고도서 정철현 <블리자드 퀀텀 점프>, 제프리 버스강 <하버드 스타트업 바이블>

물리학 용어에서 일상으로 온 퀀텀 점프

'양자역학' 하면 마블 영화부터 떠올리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특히 <앤틴트맨> 시리즈는 양자역학을 전면에 내세워 관객들에게 새로운 시각과 경험을 선사했다. 영화 속에서 앤틴트맨은 특수한 입자로 만든 슈트를 입고 개미처럼 작아진다. 우주의 가장 작은 단위인 퀀텀의 세계에서는 일반적인 물리 법칙이 통하지 않는다. 양자역학의 중요한 특성은 '얽힘'과 '중첩'이다. 이는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서로에게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양자 특성을 정보통신(IT) 기술에 접목한 것이 양자컴퓨터다. 기존 슈퍼컴퓨터의 정보 단위는 비트(bit)로 0 또는 1로 연산하지만, 양자컴퓨터의 큐비트(qubit, quantum bit)는 0과 1을 중첩해 여러 연산을 한번에 처리한다. 이론상 슈퍼컴퓨터로 작업하면 1,000년의 시간이 걸리는 작업을 양자컴퓨터는 단 4분이면 해결할 수 있다. 양자컴퓨터의 개발은 아직 초기 단계로 상용화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또다시 산업의 퀀텀 점프가 일어날 것을 예견할 수 있다.

폭발적으로 성장한다는 의미에서 퀀텀 점프는 금전이나 성공과도 쉽게 연결된다. '연봉 퀀텀 점프하기' '이직 퀀텀 점프의 비결' '수익 퀀텀 점프하는 방법' 등의 온라인 콘텐츠나 SNS 광고들이 눈길을 끈다. 어느 날 갑자기 주목받아 인기를 끈 틱톡이나 유튜브 영상, 블로그 조회수도 일상에서 만나는 퀀텀 점프의 사례다. 이때 조회수를 나타내는 그래프는 가파른 직선이나 완만한 곡선이 아니다. 아무 변화도 없는 듯 수평선에 머물다가 갑자기 계단을 뛰어오르듯 이전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급격히 상승한다. 연속성 없이 하나의 단계나 차원을 넘는 것이 바로 퀀텀 점프다.

변화와 혁신의 바람을 타고 퀀텀 점프한 기업들

기업도 사업방식이나 구조 혁신을 통해 단기간에 급격하게 성장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정체에 빠지거나, 위기에 놓였을 때 틀을 바꾸는 혁신은 퀀텀 점프의 기회가 된다. 도요타 회장인 오쿠다 히로시는 기존 관료주의와 경직적인 기업 문화를 탈피하고 미국식 경영 스타일을 적용해 도요타에 창의적인 기업체계를 창설했다. 연공서열제 대신 성과급제를 도입해 젊고 유능한 사원을 발탁하고, 사내벤처를 육성해 창의력 넘치는 젊은 조직으로 바꿔나갔다. 순발력 있는 오쿠다의 판단력은 '스피드 경영'으로 불린다. 도요타가 하이브리드 카 개발에 선두로 나서는 계기도 여기서 나왔다는 평을 받는다.



필립스 앤 티머 회장은 CEO로 취임한 이후 5년간 4만 5,000명을 감축하고, 100만 평의 유휴 부동산을 과감히 처분했다. 60여 개의 문어발식 사업 분야도 4개의 핵심 분야로 통폐합해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이뤘다.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 문화를 도입해 마케팅의 혁신을 꾀하면서 대규모 적자 기업에서 3년 만에 부채가 절반으로 줄고, 주가는 두 배가 뛰는 퀀텀 점프를 이룩했다.

외부 환경의 변화와 맞물려 퀀텀 점프한 기업들도 있다. 2019년 말, 갑자기 불어닥친 코로나 팬데믹으로 비대면 관련 기업과 백신 바이오 산업 매출이 급등하고 막대한 기업 가치가 상승했다. 업계 최초, '로켓 배송'을 앞세운 쿠팡의 퀀텀 점프도 빼놓을 수 없다. 설립 이후 각종 비용 부담으로 적자를 면치 못했던 쿠팡은 팬데믹 시대 당일 배송 시스템인

로켓 배송을 통해 소비자의 일상까지 바꾸며 유통업계 1위로 올라섰다. 스타트업 기업에서 대기업 반열에 올라선 쿠팡의 성장은 국내 재계 역사상 최단기간의 '사건'으로 불리기도 한다.

MZ세대의 뉴트로 열풍이 불면서 급성장한 대한제분의 브랜드 '곰표'도 리브랜딩으로 퀀텀 점프한 사례다. 밀가루 브랜드로 친숙했던 곰표는 새하얀 북극곰 아이콘이 지닌 뽀얗고 깨끗한 이미지를 활용해 각종 식품과 의류, 화장품 제품과 협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편의점에서는 곰표 맥주와 팝콘이 불티나게 팔렸고, 곰표 패딩, 곰표 밀가루 쿠션과 핸드크림도 젊은 층에서 인기를 끌었다. 네이버 데이터랩에 의한 '곰표' 키워드 파급력은 각종 콜라보레이션이 본격화된 2018년 이후 퀀텀 점프한 그림자를 그린다.

죽순이 돋기 시작하면
4년이라는 시간 동안 길게 뻗었던
뿌리로부터 어마어마한 양의 자양분을
흡수하면서 순식간에 자랄 수 있는 것이다.

퀀텀 점프의 폭발적인 성장에도 반드시
인내와 응축의 시간이 있다. '얽힘'과
'중첩'이라는 양자역학의 원리가
살아 숨 쉬며 때를 기다린다.



인내와 응축의 시간이 만들어낸 폭발력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교수이자 <하버드 스타트업 바이블>을 펴낸 제프리 버스강은 퀀텀 점프를 원한다면 다음과 같이 하라고 조언한다.

첫째, 불확실성을 관리하라. 스타트업이든 기획이든 그것은 마치 자욱하게 안개 낀 도로 위를 달리는 자동차와 같다. 모든 기획은 낯설고, 부딪치는 사람과 문제에 관한 해결 방안은 연이어 발생한다. 도전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예측 불가능한 불확실성을 받아들여야 한다.

둘째, 한계를 뛰어넘어라. 장애물을 만났을 때 적극적으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더욱 효율적인 해결책을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생각하라, 위기는 항상 기회이다.

셋째, 주인의식을 가져라. 자신에게 주어진 일뿐만 아니라 관계된 모든 일에 관심을 가지고 해결법을 고민하고, 더 나은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 수평적 사고로 해결 방안을 찾는 자세가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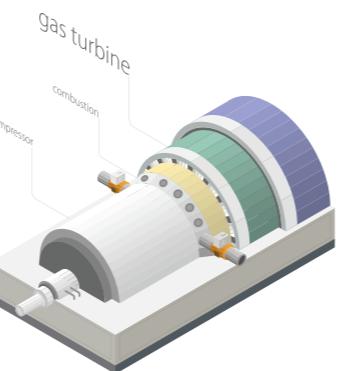
중국 극동지방에서 자라는 '모소 대나무'는 씨앗을 심은 후 4년 동안 자라기는커녕 싹조차 틔우지 않는다고 한다. 하지만 5년째가 되면 대나무밭에서 죽순이 돋기 시작해 기적처럼 하루가 다르게 급성장한다. 하루에 30센티미터 이상 자라는 대나무들은 6주가 되면 15미터 이상 자라 빽빽한 숲을 이룬다. 모소 대나무는 죽순을 내기 전, 4년 동안 뿌리를 땅속으로 멀리 뻗는다. 죽순이 돋기 시작하면 4년이라는 시간 동안 길게 뻗었던 뿌리로부터 어마어마한 양의 자양분을 흡수하면서 순식간에 자랄 수 있는 것이다. 퀀텀 점프의 폭발적인 성장에도 반드시 인내와 응축의 시간이 있다. '얽힘'과 '중첩'이라는 양자역학의 원리가 살아 숨 쉬며 때를 기다린다.

가스터빈 국산화의 중심!

김포사업소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가스터빈. 제작 기술 부족으로 외국 제품에 의존해야 했던 한국은 2022년 최초로 시동장치 국산화에 성공하며 기술력을 확보했다. K-가스터빈의 중심이자 기술력의 산실인 김포열병합발전소에 새롭게 둥지를 튼 김포사업소는 향후 가스터빈 발전소 구축을 위한 기술 자립을 도우며 새로운 도약을 앞두고 있었다.

글. 한수빈 사진. 고인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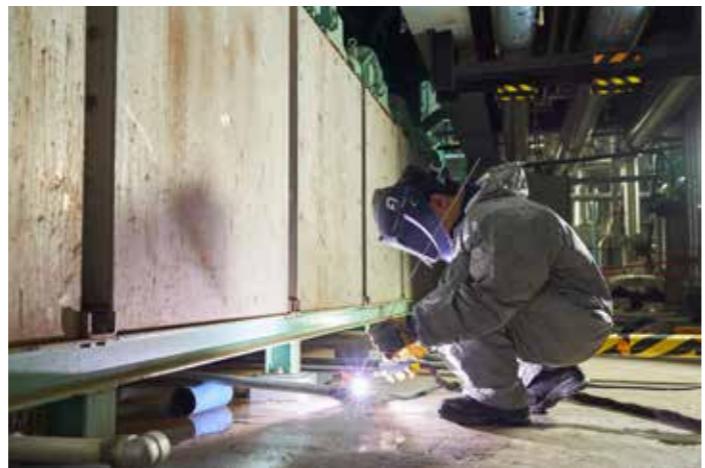
국내 최초 국산 가스터빈 발전소에 자리하다

2023년 한국서부발전 김포발전본부에 신설된 김포사업소의 주 업무는 가스터빈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고, 기술 개발과 보완, 정비 등을 돋는 것이다. 여기에 전력 발전 이후 남은 스팀을 청라 에너지로 보내 김포 주민들의 가정 내에 지역난방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한다. 지리적 특성상 학운 산단 안에 위치해 있다보니 도심 지역은 물론 일부 산업 단지의 열병합 온수 제공까지 도맡고 있다. 신설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기에 적은 인원의 규모로 운용되고 있지만 하는 업무는 김포 지역을 넘어 한국의 전력 생산 기술을 책임지고 있다고 말 할 수 있을 만큼 어깨가 무겁다. 그도 그럴 것이 김포사업소가 자리한 김포열병합발전소는 국내 최초로 가스터빈 시동장치 국산화에 성공해 상업 운전을 본격화한 곳이기 때문이다.



복합발전이나 열병합발전소의 심장 역할을 하는 발전용 가스터빈은 1,500°C 이상의 열을 견뎌야해 초내열 합금 소재 및 정밀 주조 기술, 축류형 압축기 및 배출가스 최소화 연소기, 압축기·연소기·터빈 핵심 구성품을 조합하는 시스템 통합 등 최고난도 기술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한국은 원천기술 확보가 어려웠으며 도입된 가스터빈 역시 모두 해외 제품을 사용해 왔다. 2013년 두산에너빌리티 와 한국서부발전이 손을 잡고 기술 개발에 착수했고 피땀 어린 노력 끝에 고유 기술 확보에 성공했다. 그러나 가스터빈 기술은 향후 설비 유지와 보수, 부품 교체가 필요할 뿐더러 발전소 구축을 위해서는 기술 모두를 국산화해야 한다는 큰 과제가 남아있다. 김포사업소는 현장의 일선에서 차세대 가스터빈 개발과 수출 경쟁력 확보에 일조하고 있다.

“개발한 시동장치에 수정 사항이 생길 때마다 저희가 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90% 이상 안정화가 된 상태지만 기술력이 부족하다 보니 아직은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도 발전 이후 안정화를 빠른 시간 내에 이룩한 만큼 하루빨리 기술 자립이 이루어 질 거라 확신합니다.”



국가 중요 사업이 될 수도 있는 국산 기술 가스터빈의 정비와 유지보수에 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구성원들은 큰 자부심을 갖고 있다

탄탄한 기술력과 개인의 책임감으로 내딛는 도약

설립된 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았지만 김포사업소는 짧은 시간 동안 큰 보폭으로 두 계단씩 오르며 급격한 성장을 일궜다. 임시 사무소에 정회용 소장 혼자 자리를 지켰던 극초기를 지나, 발령 난 인원들이 차츰차츰 자리를 채웠고, 현재는 그때보다 3배를 훌쩍 넘는 이들이 가족이 되었다. 아직은 다른 사업소에 비하면 큰 규모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탄탄한 실력을 갖춘 최정예 인력들이 모인 만큼 굵직한 성과를 내고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에는 김포열병합발전소 Hip 터빈 점검 공사라는 성능 개선 공사를 성공리에 진행했다. 다소 촉박한 일정이었지만 작은 사고 하나 없이 무탈하고 완벽하게 프로젝트를 마무리했고 그 결과 올해 3월, 같은 규모의 프로젝트 진행을 앞두고 있다. 예측진단 업무를 맡고 있는 최가형 직원은 “국가 중요 사업이 될 수도 있는 국산 기술 가스터빈의 정비와 유지보수에 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구성원들은 큰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어디서도 쓸을 수 없는 소중한 경험이라 생각합니다. 아직 100% 완성된 기술이 아니기에 현장에서 저희의 움직임이 어떻게 영향을 끼칠지 알 수 없다는 부분이 큰 책임감으로 다가올 때도 있지만, 오히려 신중하게 업무에 임하게 되는 원동력이 됩니다. 김포사업소의 업무가 개개인의 역량을 발전시키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 믿어요.”

가스터빈 기술의 자립을 향해

가스터빈 시운전 때부터 하나의 목표를 향해 노를 저었기에 김포사업소의 분위기는 가족 같을 수밖에 없다. 조그마한 사무실에 복작 복작 생활하며 단기간에 친밀도를 형성했고, 새로운 인원이 총원될 때도 잘 쌓은 블록 위에 똑같은 모양의 블록을 차곡차곡 쌓아 올리며 김포사업소의 문화로 자리 잡았다. 이는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 고참과 신참의 중간 다리 역할을 해줄 연령대는 없지만 베테랑들은 현장 경험이 부족한 신참들에게 하나라도 더 전수하기 위해 애쓰고, 후임들은 선배들의 기술을 흡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만 미래를 위해서 인력 보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정회용 소장과 이건호 위원장은 입을 모아 이야기한다.

“신입사원이 업무를 배워 일정 수준에 도달하기까지는 긴 시간이 걸리기 마련이죠. 인재를 육성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은 가스터빈을 정비할 수 있는 전문가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충분한 경험과 실력을 갖춘 인재를 투입한다면 지금보다 몇 배는 빠르게 기술력 자립에 다가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2025년 김포사업소는 현재 시운전 중인 가스터빈을 정식 가스터빈으로 바꾸는 공사에 참여할 예정이다. 국가 산업으로도, 한전KPS 입장에서도 크고 중요한 과제로 손꼽히는 만큼 안전하고 완벽하게 맡은 임무를 완수하고 싶다는 김포사업소. 크나큰 보폭으로 성큼성큼 나아가고 있는 곳답게 한 달 뒤, 1년 뒤, 10년 뒤 엄청난 속도로 성장해 있을 그들의 미래를 응원한다.



Mini Interview



Q. 신설사업소의 수장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첫째는 안전사고가 나지 않는 것, 두 번째는 설비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석탄화력 발전소에서 스팀터빈으로 전기를 발생시키는 시대가 도래했고, 복합 발전이 주를 이루는 시대가 왔어요. 기술이 빠르게 전환되는 때일수록 따라가는 것에만 몰두하다 보니 사소한 부분을 놓칠 수 있죠. 그게 현장에서는 안전사고나 설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Q. 김포사업소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가스터빈 발전소로서 기술 습득을 빠른 시일 안에 자립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내 최초 국산화 가스터빈 발전소다 보니 앞으로 지어지는 모든 발전소는 같은 타입으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짐재된 가능성이 무한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김포사업소의 기술력 수준이 국내 발전소 정책을 앞당길 수 있는 만큼 개개인의 역량을 키우는 데 집중해주시길 바랍니다.

갑진년, 부모님과 함께한 값진 여행의 추억

시작엔 설렘의 마음이 앞선다. 새해 다짐을 적으며, 한 달 계획을 세우며, 하루 루틴을 짜며 '하고 싶은 것'을 생각하는 것만으로 미소가 번진다. 여행의 시작도 마찬가지다. 보고, 먹고, 즐기기 위한 위시 리스트로 가득한 여행의 설렘에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한다면 그 즐거움은 배가 될 것이다. 갑진년 새해의 설렘을 안고 부모님과 함께 대만으로 떠난 대외협력실 박웅 주임의 여행처럼 말이다. 값진 추억을 쌓은 박웅 주임 가족의 대만 여행기를 만나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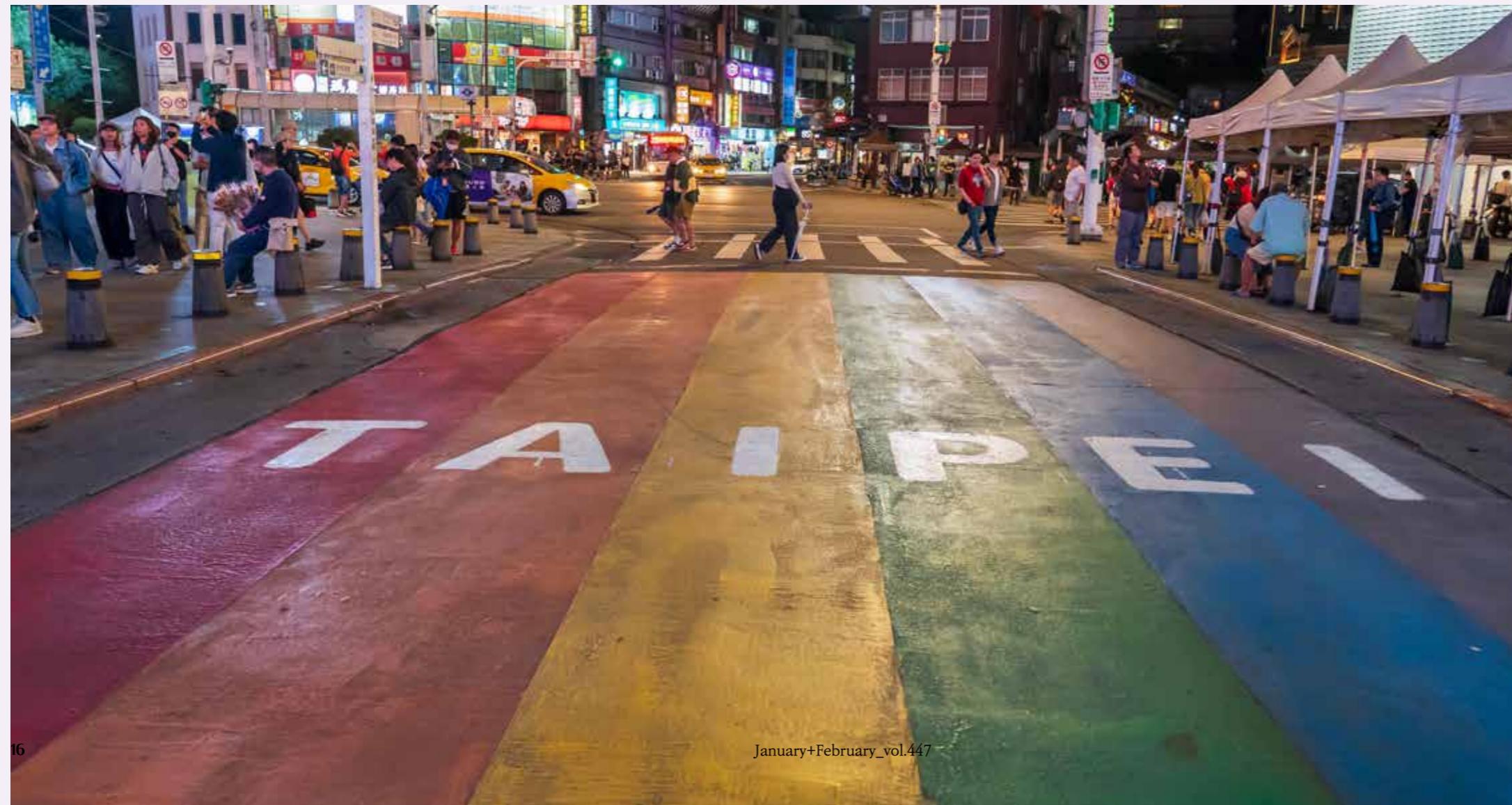
낯선 여행지에서 서로를 더 이해하는 시간



부모님과 여행을 다녀온 열애 아홉은 힘들었던 에피소드를 늘어놓는다. 오죽하면 '부모님의 해외여행 십계명'이 화제가 될 정도일까. 생각해 보면 당연하다. 평생을 함께했지만 부모님의 취향을 파악하고 있는 자식은 드물기 때문이다. 여행을 함께 즐기기 위해서는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부모님의 취향은 미지의 세계다. 그러나 대외협력실의 박웅 주임은 다르다. 부모님과 종종 여행을 즐기는 그는 여행을 통해 서로의 취향을 파악하고 알아가는 시간이 즐겁다고 이야기한다.

"요즘은 부모님과 함께 여행을 자주 다니는 편이에요. 사실 예전엔 일정을 맞추는 것부터 동선을 짜는 것까지 쉬운 일이 없었기에 가족 여행을 미루곤 했었는데요. 부모님이 더 나이 드시기 전에 세계의 좋은 곳을 함께 다녀보면 좋겠다는 생각에 추진하게 됐어요. 막상 여행을 다녀보니 모르던 부모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되고 참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웅 주임은 2024년 새해를 맞이해 부모님과 함께 대만 여행을 다녀왔다. 다양한 먹거리와 볼거리의 천국으로 불리는 곳이기에 선택한 여행지였다. 무엇보다 신경 쓴 것은 이동의 편리성이었다. 나이가 있으신 부모님이 짐을 들고 여기저기 옮기시는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가고 싶은 동선으로 짜인 패키지 여행을 찾아 예약했다고. 물론 가족만의 특별한 시간을 위해 하루 자유일정도 빼놓지 않았다. 덕분에 가족들은 여행 내내 좋은 추억을 쌓을 수 있었다.

글. 박정혜 사진. 박웅



함께 만들어 나가는 미식 로드

대만은 11월에서 2월이 건기로 여행하기 가장 좋은 시기다. 화창한 날씨에 기온도 20도 내외를 유지하기 때문에 낮과 밤 모두 관광하기에 무리가 없다. 무엇보다 먹거리의 천국이라 불리기에 낯선 음식에 거부감이 있는 사람도 입맛에 꼭 맞는 음식을 찾을 수 있다.

“대만 여행을 할 때 먹거리는 놓치지 마시라고 꼭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맛있는 음식이 넘쳐나 고민이 될 정도입니다. 아무래도 더운 지역이다 보니 음식들이 조금 자극적일 수 있지만 워낙 종류가 많기에 조금만 찾아보면 기호에 맞는 음식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박웅 주임의 가족들 역시 대만의 맛 투어를 톡톡히 즐겼다. 야시장에서 판매하는 길거리 음식은 물론이고 자유 투어로 비워 놓은 하루는 현지인이 추천하는 맛집들을 다니며 가족만의 ‘미식 로드’를 완성했다. 늘 가족을 위해 묵묵히 일해온 아버지 박재석 씨 역시 여행지에서 만큼은 본인의 취향에 맞는 음식을 맛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몇 해 전 지병으로 힘들었던 아버지의 시간을 알기에 병을 극복하고 함께하는 여행이 가족에게는 더욱 특별하다.



야시장에서 판매하는 길거리 음식은 물론이고
자유 투어로 비워 놓은 하루는
현지인이 추천하는 맛집들을 다니며
가족만의 ‘미식 로드’를 완성했다



대만 여행 두 배 즐기는 TIP

여행지원금 신청하기

대만에 3일 이상 체류하는 자유여행객에 한해 여행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응모는 온라인을 통해 가능하며 당첨자에게는 전자바우처(아이패스, 이지카드)로 우리 돈 약 25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대만 공항 도착 1~7일 전까지 신청 가능하며 결과는 대만 공항에 도착해 확인할 수 있다. 지원받은 금액은 90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이지·우유 카드 구매하기

대만의 교통카드로 이지 카드와 우유 카드가 있다.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100단위로 충전이 가능하다. 두 카드를 사용하면 교통 운임비를 20% 할인 받을 수 있기에 교통비를 절약하는데 매우 유용하다. 교통 뿐 아니라 편의점, 드럭스토어, 상점, 식당, 카페에서도 사용할 수 있으며 다쓰지 못한 잔액은 수수료를 제외하고 환불도 받을 수 있다.

여행 기간 열리는 축제 체크하기

여행 기간 중 현지 축제를 즐기는 것도 큰 즐거움이다. 대만은 축제가 많은 나라로 미리 여행 기간 중 열리는 축제의 일정을 체크해 두면 도움이 된다. 2월 중에는 천등 축제, 4월 중에는 형후 해상 불꽃축제, 6월 중에는 열기구 페스티벌 등 1년 내내 다양한 축제가 마련되어 있으니 미리 확인해서 축제까지 즐겨보자.

우리 가족, 2024년도 건강하고 행복하길!

애니메이션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배경지로 유명한 지우편과 신비로운 절경을 자랑하는 예류 지질공원, 눈길 가는 곳마다 명관인 태로각협곡과 석양이 아름다운 항구 도시 단수이까지 박웅 주임 가족은 대만에 가면 꼭 가봐야 할 랜드마크 곳곳을 누볐다. 그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장소를 꼽아달라는 질문에 박웅 주임은 주저 없이 스페인을 꼽았다. 핑시엔 기차가 오가는 철로에서 소원을 천등에 적어 하늘에 날려 보내는 마을 스페인은 ‘간절한 마음을 담아 하늘에 고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천등에 소원을 적고 천등을 날리는 전통경이 펼쳐진다.

“가족의 소망을 적어 천등을 날려 보낸 게 가장 기억에 남아요. 마침 날씨도 좋아 가족의 건강과 안녕을 빌었어요. 오랜만 일이지만 IMF로 인해 가족 모두가 어려움을 겪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물론 늘 자기관리를 엄격히 하신 아버지 덕분에 금세 극복할 수 있

지만, 가족들이 다시는 힘든 일을 겪지 않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천등을 날렸습니다.” 힘든 시기에도 가족의 마음을 보듬은 어머니 김인숙 씨에게도 가족 간의 안녕을 바란 천등 날리기는 특별한 경험으로 다가왔다고. 앞으로도 여유가 있을 때마다 가족 여행을 떠나고 싶다고 말하는 박웅 주임이 다음 여행지로 계획하고 있는 곳은 스페인이다. 부모님이 가장 가보고 싶어 하는 나라인 스페인 여행을 위해 다시금 부지런히 일정을 계획하는 그의 다음 가족 여행이 평안하고 즐거우며, 새로운 기쁨이 함께하길 기원해 본다.

캘리그래피 체험 나만의 손 글씨로 완성한 2024년, 열두 달



'활자'가 사라진 자리를 '폰트(font)'가 대신하는 시대.
글쓴이의 개성이 담긴 손 글씨를 만나게 되면 반가운
마음이 앞선다. 손 글씨 안에는, 일관된 속도로
흐르는 반듯한 폰트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글쓴이의
개성과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일 터. 분당사업소
직원 4명이 캘리그래피 달력을 만들기에 도전했다.
2024년 한 해 동안 채워나갈 다양한 빛깔의 꿈들이,
이들의 손끝에서 예쁘게 피어났다.

글. 박향아 사진. 고인순



타닥타닥 폰트 대신 쓱싹쓱싹 손 글씨

책상마다 놓인 컴퓨터, 그 안에서 '타닥타닥' 소리와 함께 똑 같은 폰트로 기록되는 문서. 분당사업소 4명의 직원이 익숙한 사무실을 벗어나 '개성 넘치는 손 글씨'로 가득한 공간에 들어섰다. 2024년 한 해의 시작과 함께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열두 달. 그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겠다는 각오와 행복한 기억으로 채워나가고 싶다는 바람을 담아 '나만의 손 글씨가 담긴 달력'을 만들기 위해서다.

"총무팀과 기술팀이 2022년부터 한 공간에서 근무하게 되었거든요. 처음에는 조금 어색하기도 했지만, 다양한 동아리 활동, 문화 체험 등 업무뿐만 아니라 소소한 일상을 공유하면서 한 팀이 되어가고 있어요. 지난해 남한산성 등반 후 함께 마신 막걸리랑 파전의 맛은 정말 최고였어요. 좋은 사람들과 함께여서 더 즐거웠던 기억이죠."

지난 2년간 함께 만든 추억들을 곱씹어보는 이봄이 직원의 얼굴에 미소가 번지고, 같은 추억을 공유한 직원들 역시 당시의 기억이 떠올리며 기분 좋은 웃음을 지었다. 그리고 오늘, 네 명의 직원들은 두고두고 꺼내 볼 또 하나의 추억을 만들 차례다.

테이블 위에 놓인 캘리그래피용 붓펜과 하얀 종이. "손에 힘을 주는 강도를 통해 선의 굵기를 잘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강사님의 설명에 따라 선 굵기 연습이 시작됐다. 마음과는 달리 빠뚤빼뚤 그어지는 선을 보고 있자니, 처음 한 글을 배웠던 까마득한 어린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다. 공책 한 바닥을 채워야 하는데, 꾀가 나서 몰래 공책을 숨겼던 기억도 겹쳐졌다. 그렇게 즐거운 '글자 연습' 시간이 시작됐다.

부드러운 곡선과 날렵한 직선의 조화

선긋기 연습이 마무리되고, 이제 본격적으로 '글씨'를 써볼 차례다. 강사님의 시범에 따라 열심히 단어를 써보지만, 덜덜 떨리는 손으로 써 내려간 글씨는 삐뚤빼뚤한 것이 엉망이다.

"요즘은 손 글씨를 쓸 일이 거의 없는 데다가 볼펜도 아닌 붓펜으로 쓰려니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강사님이 '쓱쓱' 쓰실 때는 쉬워 보였는데, 제가 워낙 악필이라 그런가."

김명석 대리가 말꼬리를 흐리자 강사님이 걱정하지 말라며 응원을 해준다.

"캘리그래피에서는 개성이 제일 중요해요. 반듯반듯 예쁜 글씨를 쓰고 싶으면 컴퓨터 폰트를 사용하면 되죠. 글씨에는 글쓴이의 성격, 마음이 고스란히 담기거든요. 나만의 개성이 담긴 글씨가 제일 매력적이랍니다."

강사님의 응원에 힘입어 저마다의 글씨로 빈 종이를 채워나가는 직원들. 손에 힘이 더해지면 굵어지고 살포시 힘을 덜어내면 가늘어지는 글씨를 보고 있자니, 긴장감은 사라지고 더 예쁜 나만의 글씨를 완성하고 싶은 욕심이 더해졌다. 동글동글 부드럽게 이어지는 곡선과 날렵하게 그어진 직선의 조화를 만들어가는 과정도, 글자에 묻어나는 나만의 개성을 발견하는 재미도 새롭고 신기하다.

글씨 연습은 이제 끝, 이제 1월부터 12월까지 날짜가 빼곡히 기록된 열두 장의 종이에 해당 달에 어울리는 문장을 써 내려갈 시간이다.



총무팀
박은아대리



기술팀
김명석 대리



손 글씨에 담아보는 열두 달의 꿈

묵묵히 글씨 연습에 매진하던 박은아 대리가 달력의 빈 곳에 '힘들면 조금 쉬어가도 괜찮아'라는 문장을 정성껏 쓰기 시작했다.

"올해가 입사 15년 차가 되는 해거든요. 아무것도 몰랐던 신입 시절을 지나 이제는 팀에서 선배의 위치에 서게 됐는데요. 그 시간 동안 함께해준 동료 선배님들, 그리고 묵묵히 응원해준 가족들에게 감사한 마음이 드네요. 열심히, 꾸준히 달려와 준 저 자신에게도 고맙고요. (웃음) 그래서 올해는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잠시 쉬어가도 좋을 것 같아요. 더 높이 도약하기 위해서요."

이봄이 직원의 6월 달력에는 딸 정원이의 생일을 축하하는 마음이 담긴 '정원, SUNNY DAY'라는 문장이, 김명석 대리의 12월 달력에는 '당신의 인생의 봄날은 언제나 지금'이라는 문장이 기록됐다.

"올해는 따야 할 자격증이 여러 개 있거든요. 제게 맡겨진 업무를 더 잘 해내는데 필요한 자격증인 만큼, 열심히 노력해야죠. 그렇게 치열하게 보낸 하루하루가 모여서 12월이 됐을 때, 자신에게 '지금이 내 인생의 봄날'이라고 얘기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분당사업소의 막내, 하선재 직원은 자신의 글씨로 채워진 열두 장의 달력을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보이는 침대 옆 테이블에 놓기로 했다. "거창한 목표나 계획은 없지만, 비어있는 달력을 빼곡하게 채울 수 있도록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보내고 싶다"는 마음으로 '우리 꽃길만 걸어여'라는 문장을 정성껏 쓴 하선재 직원. 매일 아침 손 글씨가 적힌 달력을 보며 시작하는 하루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 채워질 것이 분명하다.

각자의 바람과 진심이 담긴 말들을 자신만의 글씨로 옮겨 적으면서, 오랜만에 글씨 쓰는 즐거움을 맛본 네 명의 직원들. 개성 가득 한 글씨로 채워나간 달력 위에 행복한 기억들이 빼곡히 기록되길 바라본다.



총무팀
이봄이 직원



기술팀
하선재 직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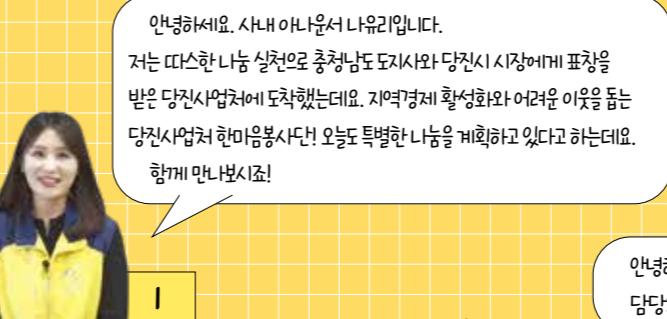
"거창한 목표나 계획은 없지만, 비어있는 달력을 빼곡하게 채울 수 있도록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보내고 싶다" 매일 아침 손 글씨가 적힌 달력을 보며 시작하는 하루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 채워질 것이 분명하다.



함께 하는 기쁨, 희망을 전하는 한전KPS 당진사업처 '한마음봉사단'



‘나누는 사랑, 하나 되는 세상’은 한전KPS 한마음봉사단의 슬로건이다.
마음을 모아 한뜻으로 어려운 이웃과 지역사회에 희망의 빛을 전달하는 한마음봉사단은 전국적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노력과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을 돋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KPS STORY> 1+2월호에서는 전통시장 활성화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온 공로를 인정받아
2023년 충청남도 도지사 표창과 당진시 시장 표창을 받은 당진사업처의 사회공헌 현장을 함께했다.
6년째 결식이동을 위해 도시락과 간식을 전달하고 있는 당진사업처 직원들이 만드는 따뜻한 순간을 함께 만나본다.



안녕하세요. 사내 아나운서 나유리입니다.

저는 따스한 나눔 실천으로 충청남도 도지사와 당진시 시장에게 표장을
받은 당진사업처에 도착했는데요. 지역경제 활성화와 어려운 이웃을 돋는
당진사업처 한마음봉사단! 오늘도 특별한 나눔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1

반갑습니다. 당진사업처
한마음봉사단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2

3

안녕하세요. 한마음봉사단
담당자님이신가요?

4

당진사업처 신중목 처장



한마음봉사단 담당자 이정아

안녕하세요. 당진사업처 한마음봉사단은 당진시와 당진시복지재단과
아동보호를 위해 2022년부터 업무협약을 맺어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방학으로 인해 결식의 우려가 있는 아동을 위해 도시락과 간식을 만들어
선터에 전달하려고 합니다.
원활한 사회공헌을 위해 사전 브리핑이 준비되어 있으니, 저를 따라오세요!



한마음봉사단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일 봉사활동은 경제적 여건의 어려움으로
당진시에서 운영하는 슈퍼마켓에 있는 보호아동들에게 물품과 간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당진시장에 가서 물품을 구입한 후 정성스럽게 도시락을 만들어
보호아동 선터에 전달 부탁드립니다.



당진시복지재단 김정현 팀장

안녕하세요. 당진시복지재단 김정현 팀장입니다.
언제나 지역사회를 위해 힘써주시는 한전KPS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나눔을 위해 당진시장에 물품을 구입하러 함께 가시죠.

좋은 곳에 쓰이는 과일인 만큼 정성을 다해 골라
드렸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과일로 추천해
드렸는데요. 이렇게 시장에 오셔서 직접 물품을 구입해
주시고 더불어 우리 시 아동들을 위해 힘써주신다니
감사한 마음이 드네요.



6



7

8



구입한 물품으로 도시락 만들기

든든한 한 끼가 될 수 있도록 닭강정과 떡, 그리고 다양한 과일로 도시락을 만드는 한마음봉사단

LET'S GO!!!

완성된 도시락을 들고 지역아동센터로 이동!



9

10

감사!



II

아동청소년그룹홈 참소중한집 시설장

저희 그룹홈은 대학생부터 초등학생까지 다양한 연령의 보호아동이 있는데요. 한전KPS 당진사업처 한마음봉사단 분들이 물품 지원뿐만 아니라 운동 경기 관람 등 아이들과 함께하는 체험 활동도 해주고 계셔서 늘 감사한 마음입니다.

12



봉사활동을 마치며

저희 한마음봉사단 슬로건이
'당진시 보호아동 곁에는 한전KPS'입니다.
오늘 저희의 작은 활동이 아이들에게 따뜻하게 전달되길 진심으로 기원해 봅니다.



▶ 한전KPS 나눔의 현장을 만나고
싶다면 QR코드를 찍고 한전KPS 유튜브
채널에 방문해주세요!



당진사업처 안전팀 전수현, 기계1부 정희현

9

11

한전KPS가 만드는 아름다운 세상!



LOVE ♥ LOVE ♥ LOVE

당진사업처 한마음봉사단

'당진시 보호아동 곁에는 한전KPS'라는 슬로건 아래 꾸준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당진사업처는 부모의 학대와 방임 등의 이유로 가족이 아닌 지역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생활을 돋는 보호시설에 꾸준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더불어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해 지역 경제에 이바지하고자 식료품과 생활용품 등을 꾸준히 구입해, 필요한 곳에 전달하고 있다.

You
MAKE
ME
HAPP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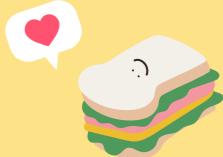
당진사업처 신종목 처장

Q. 사업처 처장으로 사회공헌에 앞장서고 있는 직원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역사회에의 발전과 어려운 이웃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힘써주고 있는 우리 직원들에게 늘 감사한 마음입니다. 당진사업처 한마음봉사단은 전통시장에서 물품을 구입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노력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동들의 자립을 돋는 쉼터에 물품을 후원, 이를 통해 보호아동들의 보다 나은 삶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당진시복지재단 김정현 팀장

당진시 여성가족과 아동보호드림팀
박상경 팀장

Q. 후원금 전달이 아닌, 간식이나 도시락으로 지원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단순한 후원금 전달로 끝난다면 기관과 아동에 특별한 의미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성스럽게 준비한 간식과 도시락을 전달함으로써 아동에게도 따뜻한 마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한다면 성장기 아이들의 정서적인 안정에도 더 도움이 된다는 이유에서 번거롭더라도 아이들을 위한 마음이 들어간 물품들로 후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진사업처 한마음봉사단은 물품 지원 외에도 보호아동과 함께 야구 경기를 관람하며 좋은 추억을 선사하거나 지역사회 구성원에게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을 펼치며 긍정 양육의 중요성을 알리는 등 맞춤형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어 감사한 마음입니다.

새로 꿈꾸며, 다시 도전하며 2024년 설렘과 희망을 품은 여행

낯선 경험을 통해 새로운 인생 여정을 마주하는 과정. 이것이야 말로 여행만이 부릴 수 있는
마법이 아닐는지. 2024년, 여행을 통해 새해를 활짝 열어보는 건 어떨까. 시작의 설렘과
희망적인 에너지가 깃든 여행지를 추천한다. 순백의 설산은 용기를, 빠르게 피어난 꽃은 낭만을,
찬란한 별은 희망을 선사할 것이다.

글. 김주희(여행 자유기고가) 사진. 한국관광공사



#선행 #눈꽃 #자신감 #도전

강원 평창 오대산 국립공원

파란 하늘 아래 펼쳐진 순백의 설원

가장 순도 높은 겨울여행은 설원을 누리는 경험이 아닐까. 여기에 산행을 더한다면 더없이 도전적이고 역동적인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을 터. 오대산은 3월까지 봄 눈이 내리는 덕분에 넉넉한 자연의 품을 감싸안은 설경을 오래도록 볼 수 있는 매력적인 곳이다. 매년 강설량이 많은 데다 산세가 완만해 눈꽃산행을 즐기기에 제격이다. 해발 1,563m에 달하는 오대산은 사이사이 수많은 계곡과 키를 훌쩍 키운 나무들이 즐비하다. 아득한 시간을 지나 뿌리를 단단히 내린 전나무, 자작나무, 신갈나무 등이 기품을 뽐내며 눈과 빛어내는 풍경은 깊고 묵직한 울림을 선사한다. 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순백의 눈으로 뒤덮인 나뭇가지는 순록의 뿔처럼 고아하고 정갈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사방으로 흐드러진 얼음꽃과 눈꽃의 영롱한 아름다움을 눈에 담고, 뿐드득뽀드득 눈길을 밟으며 나아가노라면 어지럽고 복잡한 머릿 속이 깨끗하게 리셋되는 기분이다.

오대산 눈꽃산행의 백미는 비로봉이다. 비로봉에 다다르기 직전 경사길이 매우 가파른데, 정상을 향해 가쁜 숨을 몰아쉬며 올라야 한다. 위대한 자연과 동화되어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과정은 내면을 용기와 자신감으로 채우기에 충분하다. 비로봉에서는 높은 산세를 내려다볼 수 있는데, 상왕봉, 두로봉, 노인봉, 동대산 등 오대산의 주요 봉우리가 한눈에 담긴다.

오대산 자락 월정사에서 상원사까지 계곡을 따라 이어지는 선재길도 놓치지 말 것. 흙, 돌, 나무 등 자연을 벗삼아 오대천을 넘나드는 사색과 치유의 길로 평지로 이루어져 남녀노소 부담 없이 걷기 좋다. 바쁜 일상을 잠시 내려두고, 발끝에서 뒤꿈치까지의 감각을 오롯이 느끼고 걷기에 집중하다 보면 인생에서 새롭게 나아가야 할 길이 더욱 명징해질 것이다.

Odaesan National Park



Q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병내리 산1-2

📞 1670-9201(국립공원공단)





#꽃 #산책 #생명력 #탄생

전남 여수 오동도

흐드러진 동백꽃 사이로, 힐링을 누리다

자연의 생명력이 주는 울림은 제법 크다. 특히 매서운 겨울 추위에도 보란 듯이 꽃봉오리를 틔우고 마는 동백꽃은 우리에게 생명의 신비와 희망적인 메시지를 건네준다. 대표적인 동백꽃 명소인 여수 오동도는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에 선정될 정도로 빼어난 풍경을 자랑하는 곳이다. 동백나무가 빼곡히 자리한 섬 전체가 붉은 꽃잎으로 물든 경치는 여수 10경 중 하나로 손꼽히기도 한다. 해마다 2월이면 동백꽃이 꽃봉오리를 열기 시작해서 3월에 절정을 이룬다.



Q 전라남도 여수시 오동도로 222

061-659-1819

Odongdo Island



오동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약 760m에 이르는 긴 방파제를 거쳐야 한다. 양쪽에 파노라마로 펼쳐지는 푸른 바다를 조망하며 걸어서 들어가거나 방파제 입구에서 동백열차에 몸을 싣고 입도할 수도 있다. 오동도에는 200여 종의 나무들이 군락을 이루고 있다. 동백나무를 비롯해 해장죽, 참식나무, 팽나무, 후박나무, 쥐똥나무 등이 조붓하게 자리한다. 이 중 동백나무 3,000여 그루가 이루는 붉은 자태는 장관을 이룬다. 농도 짙은 푸른 잎과 빨간 꽃잎, 샷노란 수술이 선명한 색상 대비를 이루며 이채로운 인상을 자아낸다.

오동도의 동백꽃은 다른 곳과 다르게 크기가 작고 촘촘하게 피어나는 것이 특징. 아기자기한 모양새로 오밀조밀 한데 모인 풍광을 보여준다. 나무와 산책로 사이사이 벤치와 다양한 콘셉트의 포토 스폿들이 마련돼 있는데, 연인과 가족 단위 관광객에게 특히 인기가 높다. 이 밖에도 오동도의 다양한 매력을 함께 즐겨 볼 것. 높은 등대가 위치한 테마공원, 해안을 모두 조망할 수 있는 산책로, 기암절벽으로 어우러진 절경까지 오동도의 속살을 더욱 깊게 누릴 수 있다.



#은하수 #캠핑 #재충전 #설렘

경남 합천 황매산

밤하늘을 수놓은 은하수 아래 충전

화려한 불빛으로 온통 물든 도시에서 우리는 되레 정서적 허기를 느끼곤 한다. 번잡한 속세에서 벗어나고 싶은 고요한 휴식에 대한 갈망이 짙어지는 것. 2024년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출발선에 섰다면, 태초의 빛과 청정 자연을 찾아 떠나보자. 까만 밤하늘에 총총히 떠 있는 수많은 별 그리고 그사이를 흘러가는 신비로운 은하수를 보는 것만으로도 시작의 설렘이 배가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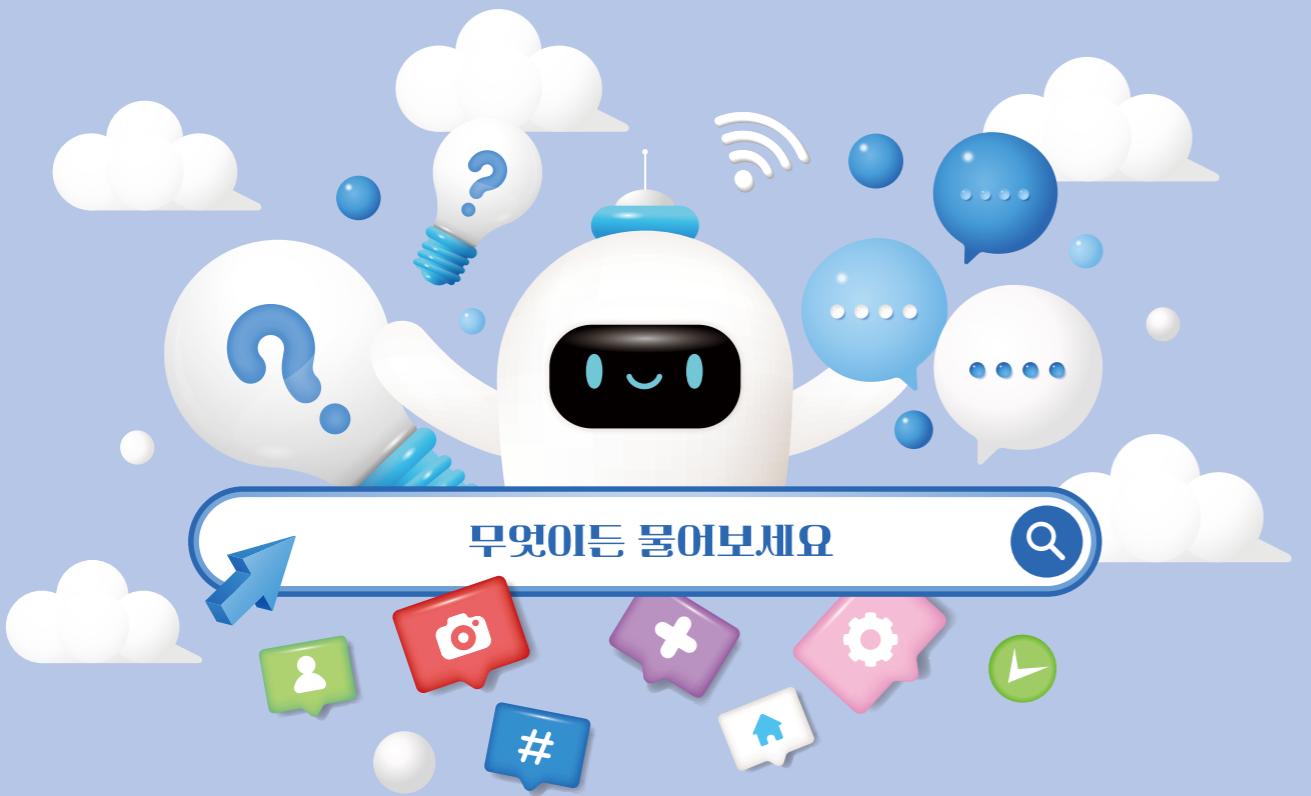
Hwangmaesan Mountain



Q 경상남도 합천군 가회면 황매산공원길 331

055-930-4769(황매산군립공원)

스마트 워크로 능률 UP, 효율 UP!



2022년 말 갑자기 등장한 챗GPT(ChatGPT)가 연일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챗GPT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업무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만큼 근무 환경에도 큰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챗GPT란 무엇이고 어떻게 사용해야 업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지 그 방법에 대해 살펴본다.

글: 김영욱(Hello AI 대표·<생성형 AI 사피엔스> 저자)

챗GPT와 함께 다가온 미래

챗GPT에 대한 관심이 그야말로 뜨겁다. 작년 한국 출판업계에서 챗GPT 관련 서적이 250권 이상이 출간된 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알 수 있다. 또 챗GPT 가 출시되고 단 5일 만에 100만 사용자를 확보한 사실만 보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 이 얼마나 챗GPT에 열광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이미 우리 곁에는 애플의 시리와 삼성의 빅스비와 같은 인공지능들이 존재했지만 사람들이 인공지능에 거는 높은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했다. 사람들의 기대치는 이미 영화 <아이언맨>에서 봤던 서비스와 같은 인공지능이었다. 서비스는 주인공인 토니 스타크가 묻는 질문에 적절하게 대답해 주고 주변에 있는 시설들을 제어하면서 또 하나의 동료로 완전히 함께 일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런 서비스처럼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의 인공지능을 인공 일반 지능(AGI: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기술이라고 말한다. 챗GPT는 이제까지 나왔던 그 어떤 인공지능 기술보다도 인공 일반 지능에 가장 가까운 기술이었고 그래서 사람들은 챗GPT를 보면서 서비스를 떠올리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거대 언어 모델의 시대가 왔다

챗GPT의 시작은 수많은 사람의 말을 학습한 언어 모델이다. 사람도 책을 많이 읽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새로운 정보를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의 말을 충분하게 학습한 거대 언어 모델이 기본이 된 챗GPT는 구글, 매티, 엔비디아 그리고 국내의 네이버 등의 유사 서비스에 비해서는 가장 좋은 결과물을 내놓고 있다. 챗GPT는 오픈 AI(OpenAI)가 개발했지만 사실상 챗GPT의 실질적인 수혜를 가장 많이 받고 있는 회사는 바로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이다.

マイクロソフト는 14조 내외의 투자를 오픈AI에 감행하면서 챗GPT 기술을 비롯해서 많은 결과물을 마이크로소프트의 서비스와 제품에 적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갔다. 그 결과 검색 엔진인 빙(Bing)에 챗GPT 기술과 더불어 그림을 생성할 수 있는 달이(DALL-E) 3 등을 적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유의미하게 구글의 점유율을 가져오고 있는 것도 눈에 띠는 부분이다.

マイクロソフト의 전략에서 특히 눈에 띠는 부분은 바로 플랫폼이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거대 언어 모델을 이용해서 코파일럿(Copilot)이라는 플랫폼을 개발 했다. 코파일럿은 현재 마이크로소프트의 여러 제품에서 챗GPT와 같은 똑똑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 돋는 플랫폼으로, 검색 엔진인 빙 이외에도 윈도즈(Windows) 11에서 대화가 가능하도록 돋는 역할을 한다. 윈도즈 코파일럿은 글쓰기, 코딩, 디자인과 더불어 학습과 관련한 정보 검색 기능을 갖추고 있어 생산성과 창의성을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챗GPT가 쏘아올린 놀라운 변화

マイクロ소프트에서 2023년 출시한 MS 365 코파일럿은 챗GPT에 하듯 필요한 요구 사항을 채팅 창에 입력하면 문서 작성부터 엑셀 데이터 분석, 발표용 슬라이드 작성까지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외에도 많은 서비스에 코파일럿을 적용 중이기에 본격적으로 인공지능 시대가 왔음을 실감할 수 있다. 포토샵으로 유명한 어도비(Adobe)도 적극적으로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있다. 포토샵에서 여러 도구들을 사용해서 사람이 이미지를 일일이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생성형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영역을 지정하고 어떻게 수정할 것인지 말로 표현하면 인공지능이 이미지를 직접 수정해 준다. 어도비는 파이어플라이라는 이름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약간의 무료 사용이 가능하고 이후에는 구독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금은 이런 챗GPT와 같은 인공지능에 어떻게 명령을 효과적으로 줄 수 있는지가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 이렇게 인공지능에 명령을 주는 것을 프롬프트(Prompt)라고 하는데 이것을 좀 더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주는 방법을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한다. 사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특별한 전문가가 있다기 보다는 각 영역의 사람들이 약간의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경험적으로 좋은 방법을 찾아가는 귀납적인 접근에 가깝다. 그리고 그런 도전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을 것 같다.

본격 인공지능의 시대 프롬프트 작성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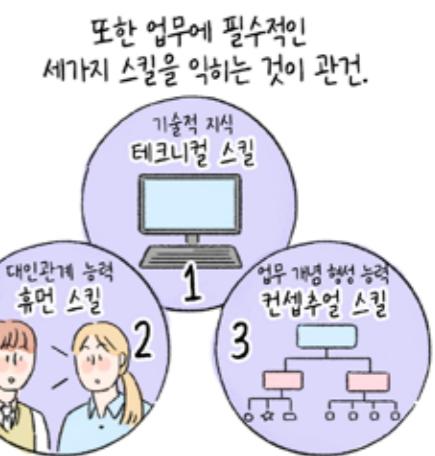
1. 한 개의 채팅방에서는 하나의 주제로 대화한다.
2. 정보의 타깃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AI에 역할(페르소나)을 부여한다.
3. 전체적인 맥락이나 구체적 정보를 알 수 있는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4. 얻고자 하는 정보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문한다.
5. 확보된 내용은 반드시 사실 확인을 거치고, 이후 얻어낸 정보의 최적화를 다시 한번 진행한다.

새로운 업무도 유연하게 일을 리드하는 노하우!

일은 삶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성취와 만족에 직결되는 만큼 일의 세계는 절대 만만치 않다.

업무의 환경과 해야 할 담당 직무 역시 변동적인 요소가 많다. 때문에 새로운 업무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업무 스킬을 마련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직장의 신>에서 일에 끌려가지 않고 일을 리드할 수 있는 노하우에 대해 살펴본다.

정리. 편집실 그림. ohnle



1 2024년 전대리와 콜사원에게 새로운 업무를 주는 한차장.



2 걱정이 앞서는 콜사원과 달리 여유로워 보이는 전대리.



3 그래서 콜사원이 물어보는데



4 음... 그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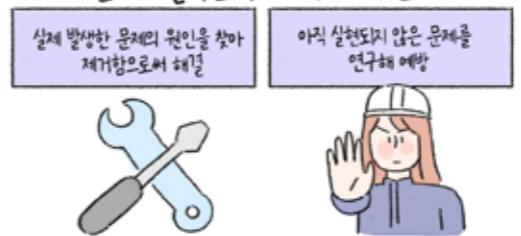
7 목표 완성을 위한 셀프 트레이닝을 해보는 것
이 도움이 되는데



8 여기서 4W 1H 전략을 대입하면 좋다.



9 만약의 사태를 대비한
문제 해결력도 길러두면 좋다.
문제해결력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



10 청룡의 해 힘찬 출발을
다짐하는 한차장과 전대리, 콜사원



봄이 되면 가장 반가운 손님! 새콤달콤 딸기의 매력



추운 겨울과 만물이 생명력을 머금고 새롭게 태어나는 봄 사이를 이어주는 과일이 있다. 바로 봄의 전령사라고 불리는 ‘딸기’가 그 주인공이다. 1월부터 5월까지 제철을 맞은 딸기는 추운 겨울 면역력을 올려주는 든든한 식재료이자 식탁 위에 봄소식을 가장 먼저 알려주는 반가운 손님이다.

글·사진 이주현(푸드 칼럼니스트)

풍부한 비타민C 저장소, 딸기의 효능

딸기는 작은 한 알에 뛰어난 영양성분을 담고 있다. 특히 비타민C 함유량이 풍부하다. 일교차가 큰 봄에는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데, 하루에 딸기 몇 알만 먹으면 하루치 비타민C 필요량을 채울 수 있다. 또한 딸기의 탐스러운 붉은색은 자연이 만든 천연 물감이라 불리는 안토시안 성분에서 나온다. 이 안토시안은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 혈증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관을 튼튼하게 한다.

주의할 것은 딸기의 비타민C는 물속에서 녹는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깨끗하게 세척하기 위해 딸기를 장시간 물에 담그는 행동은 지양해야 한다. 30초만 넘어도 비타민C가 손실되기 시작하므로 소금물이나 식초 물을 사용해 재빠르게 행구는 것이 좋다. 또한 딸기는 껌질이 얇고 과육이 부드러워 상하기 쉬우므로 흐르는 물에 가볍게 씻는 것을 추천한다.

스파이도 반한 딸기의 치명적인 매력

최근 우리가 즐겨 먹는 딸기는 그 역사가 200여 년밖에 되지 않았다. 16세기까지 딸기는 오로지 관상용의 야생 딸기만 존재했다. 현재 우리가 먹는 딸기는 ‘아메데 프랑수와 프레지에’라는 프랑스 소속 스파이와 연관이 깊다.

프랑스 육군 정보국 소속이던 그는 1712년 남미 칠레의 군사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식물학자 신분으로 위장해 생활하고 있었다. 그의 주된 업무는 칠레 해안가의 병력과 군사 시설을 파악하는 것이었는데 그는 야생 딸기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는 동시에 군사정보를 암호로 적어 자국에 전달했다. 그런데 이 냉혹한 스파이가 임무를 위해 딸기를 조사하던 중에 그만 진짜로 딸기의 매력에 빠진 것이다. 그래서 임무를 마친 후 프랑스로 귀국할 때 칠레의 야생 딸기 종자를 들여왔고, 그 후 여러 식물학자에 의해 다양한 품종 교배를 거치면서 현재 우리가 즐겨 먹는 딸기가 탄생했다고 한다.



딸기의 붉은색

안토시안 성분은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
혈증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관을 튼튼하게 한다

신선한 딸기 구매 & 손질법

딸기를 구매할 때는 꼭지가 마르지 않고 진한 푸른색을 띠는 것이 신선한 상품이다. 딸기는 습도에 약하기 때문에 밀봉해서 보관하면 물러지거나 곰팡이가 생기기 쉽다. 구매한 그대로 종이상자에 담아 보관하는 것을 추천한다. 바로 먹을 딸기는 꼭지를 떼지 않은 상태로 랩을 씌워 냉장고에 보관한다. 싱싱한 상태로 오래 보관하기 어려우므로 1주일 안에 먹는 것이 좋다.

딸기는 생과일로 그 자체만 먹어도 맛있지만 함께 먹었을 때 맛과 영양까지 더 좋아지는 찰떡궁합 친구가 있다. 바로 '유제품'이다. 우유나 요구르트, 치즈 등의 유제품과 함께 먹으면 칼슘이 보충되면서 골다공증 예방 효과까지 생긴다. 집에서 손쉽게 먹으려면 우유를 함께 넣고 막서기에 갈아 딸기 우유로 즐기거나 볶에 딸기, 견과류, 요구르트 등을 넣어 먹으면 건강까지 챙길 수 있다.

봄맞이 딸기 디저트 '크림치즈 딸기 브루스케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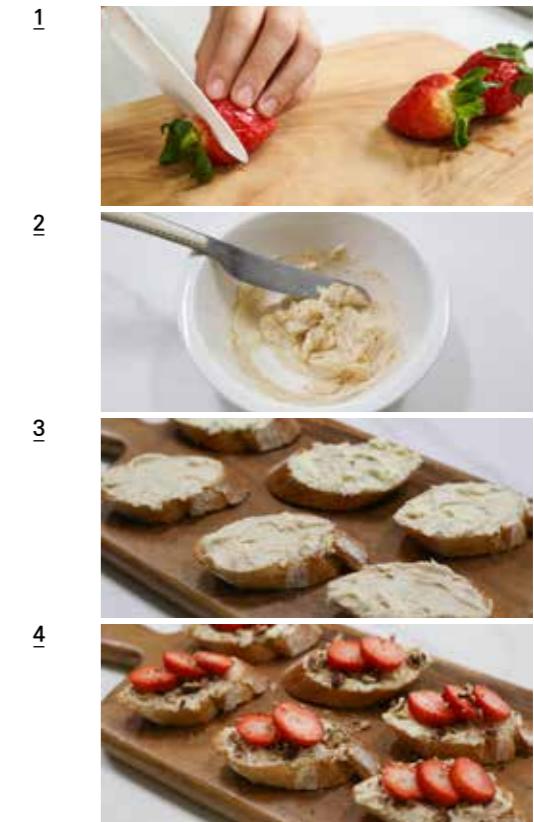
'브루스케타'는 이탈리아 전채 요리로 납작한 빵 위에 다양한 재료를 얹어 먹는 메뉴이다. 만들기 쉽고 간단하기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요리이다. 겨울과 봄에 제철인 딸기를 듬뿍 올린다면 제대로 된 제철 한 상을 만끽할 수 있다.

이번에 소개할 크림치즈 딸기 브루스케타는 바삭하게 구운 바게트 위에 부드러운 크림치즈를 듬뿍 바르고 새콤달콤한 딸기를 얹어 먹는 간단한 요리다. 만드는 법은 간단하지만 입안 가득 봄을 알리는 상큼한 맛을 느낄 수 있다. 레시피에서 소개한 재료 외에 다진 초콜릿, 바나나, 메이플시럽, 버터, 견과류 등 기호에 맞는 다양한 토핑을 얹어 나만의 브루스케타를 만들어 먹어도 좋다. 먹기 바로 직전에 완성해야 빵이 녹녹해지지 않고 더 맛있게 즐길 수 있다.

필요한 재료

바게트, 크림치즈 2큰술, 꿀 1작은술, 시나몬 가루 1꼬집, 딸기, 견과류, 토픽용 채소(선택)

만드는 과정



- ① — 딸기는 바게트 위에 올리기 좋은 크기로 썬다.
- ② — 크림치즈, 꿀, 시나몬 가루를 취향에 맞게 넣고 섞는다.
- ③ — 바게트 위에 2의 크림치즈를 듬뿍 바른다. 냉동 보관한 바게트라면 기름을 살짝 뿌려 마른 팬이나 오븐에서 구워 바삭함을 살린다.
- ④ — 크림치즈를 바른 바게트 위에 딸기를 얹어 완성한다. 취향에 따라 견과류나 채소(루꼴라, 새싹 채소), 베리류 등의 재료를 토픽으로 활용한다.



본사 뉴스

2024년도 시무식 개최



우리 회사의 한 해 시작을 알리는 2024년 갑진년 시무식이 지난 1월 2일 개최됐다. 본사 빛가람홀에서 열린 시무식은 모범직원상 수여 및 CEO Safety Awards 수여, 신년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김홍연 사장은 신년사에서 국민과 정부의 눈높이에 맞는 질적 성장을 이뤄내야 함을 강조하며 구체적인 성과 창출을 기반으로 국민의 삶 향상과 정부 정책 실천으로 이어가자고 당부했다. 이어 팀 코리아의 일원으로 원자력 발전소 보수 유지 정비 분야에서 해외수출 사업 다각화를 통해 지속적인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무식을 마친 전 직원들은 희망찬 새해 새출발을 다짐하며 올해 첫 업무에 임했다.

한편 시무식에 이어 임원과 노조 간부들은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한 후 인재개발원으로 이동하여 순직직원들의 숭고한 희생과 넋을 기리는 시간을 가졌다.

이성규 신임 상임감사 취임식



우리 회사 제18대 이성규 신임 상임감사가 취임했다. 이 상임감사는 지난 1월 9일 본사 빛가람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청렴과 공정의 의지로 정직하고 투명한 조직문화 혁신에 앞장서겠다는 취임 일성을 밝혔다. 이어 임직원들에게 '깨진 유리창 법칙'을 인용하며 사소해 잘 드러나지 않는 문제들일지라도 꼼꼼히 찾아내 수리하는 것을 상임감사로서의 소명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이 상임감사는 특히 평생 신념으로 지켜온 '정직, 겸손, 열정'이라는 생활신조와 함께 우리 회사가 고객과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성장 기업으로 도약하는데 밀 알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취임식에 앞서 지난 2년 4개월여 동안 인권 친화적 소통과 공감 감사를 구현하고 우리 회사의 청렴 공정 기업문화 정착과 경영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한 강동신 감사에 대한 이임식이 진행됐다.

단위부서장 사령장 수여식



본사 및 사업소 단위부서장에 대한 사령장 수여식이 지난 1월 3일과 8일 본사 창조홀에서 열렸다. 김홍연 사장은 올해 새로 부임한 단위부서장들에게 사령장을 수여한 후 직원들이 애사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단위부서장들은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직원들의 이해와 공감을 얻기 위해 솔선수범하겠다고 다짐했다.

2023년도 임금협약 조인식 진행



2023년도 임금협약 조인식이 지난해 12월 26일 본사 창조홀에서 진행됐다. 김홍연 사장과 김종일 노동조합 위원장을 비롯한 양측 교섭 및 협의위원들이 참석한 이번 임금협약 조인식에서 노사는 양보와 타협을 통해 임금교섭을 원만히 마무리할 수 있었다. 이를 위해 애쓴 교섭위원들의 노고를 상호 치하하고, 앞으로도 직원 근로조건 향상과 행복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2023년 제2차 신입사원 입사식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우리 회사에 최종 합격한 61명의 신입사원들이 지난해 12월 27일 본사 빛가람홀에서 입사식을 갖고 한전KPS으로 첫발을 내디뎠다. 김홍연 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회사의 주인이라는 소명의식과 책임감을 갖고 업무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신입사원 대표는 답사를 통해 항상 배운다는 자세로 끊임없는 자기 계발과 기술 습득으로 변화와 혁신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정보공개 종합평가 2년 연속 최우수 등급



우리 회사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도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우리 회사는 사전적 정보공개, 원문정보 공개, 정보공개 청구처리, 고객관리 및 운영 등 모두 4개 평가 부문에서 고루 높은 점수를 받으면서 종합등급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총득점 98.06점으로 동일 평가군인 중앙 공기업군에서 최상위권이며,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 등급 기관으로 선정됐다.

본사 뉴스

2024년도 본부별 업무보고 시행



우리 회사는 김홍연 사장을 비롯한 임원 및 부장급 이상 주요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월 24일 본사 창조홀에서 2024년도 본부별 업무보고를 시행했다. 업무보고에서는 해당 본부별 인력 현황과 부서 수행업무, 그리고 주요 현안사항과 함께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 등에 대한 보고가 이어졌다. 김홍연 사장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올 한 해 또한 부서 간 원활한 소통을 통해 계획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진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생태환경교육 프로그램 '그린마인드셋' 성료



우리 회사가 자라나는 꿈나무들의 환경보전 의식 고양을 위해 마련한 생태환경교육지원 프로그램 '그린마인드셋'을 성황리에 마쳤다. 굿네이버스 및 전라남도나주시교육지원청과 함께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생태계, 환경보존, 신재생에너지, 친환경에 대한 올바른 마음가짐과 태도를 갖춘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기획한 이번 교육 프로그램은 나주 빛가람중학교 등 전남 지역 초등학교 5곳과 중학교 8곳에서 모두 53회에 걸쳐 1,282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경영혁신 다짐대회 개최



우리 회사는 지난해 12월 14일과 15일, 이틀에 걸쳐 전국 모든 사업소장들이 한 자리에 모인 가운데 '비전2030 달성 및 경영혁신 다짐대회'와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2023 전사 경영현안 다짐대회'를 개최했다. 다짐대회에서는 '한전KPS VISION2030 Rolling' 추진방향을 공유하고, 도전성·중요성·정합성 진단을 통한 새로운 경영목표를 재정립했다. 김홍연 사장은 미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과감한 혁신과 전사적 소통을 강조했다.

DJSI코리아 15년 연속 편입



우리 회사가 미국 스탠더드앤푸어스 글로벌(S&P Global)이 발표한 '2023 다우존스지속가능경영지수(DJSI) 코리아'에 15년 연속 편입됐다. 이로써 세계적 공신력의 DJSI코리아에 공기업으로 유일하게 최장기간 연속 선정기업 중 한 곳이 되었다. 이같은 성과의 배경에는 '그린에너지(Green Energy)와 함께, 사랑받는 지속성장 기업'이라는 슬로건 아래 전사 역량을 집중한 ESG 경영 활동이 있는 것으로 자체 분석된다.

본사 뉴스

2023년 품질경영경진대회 개최



우리 회사는 지난 1년 동안 현장에서 추진한 품질경영혁신 성과를 공유하고 최상의 고객만족 서비스를 이뤄내기 위한 '2023년 한전KPS 품질경영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12월 7일 본사 대강당에서 열린 이번 품질경영경진대회는 전호광 부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및 전국 사업소 분임조원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전호광 부사장은 격려사를 통해 "업무의 시작과 끝이 모두 품질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업소 뉴스

인천사업소 중부발전과 합동 안전 점검



인천사업소는 지난해 12월 15일 한국중부발전(주) 인천발전본부에서 열린 '중부발전 CEO 주관 겨울철 전력수급 대책기간 발전설비 현장 합동 안전 점검'에 참석했다. 금번 겨울철 최대전력 예상수요는 91.3 ~97.2GW에 달해 전년 역대 최대부하인 94.5GW를 웃돌거나 비슷 할 전망으로 이날 회의에서는 겨울철 전력피크·기동정지 대비 발전설비 보강 및 화재예방활동 등 선제적인 예방대책과 발전설비 고장정지 대비 긴급복구 비상근무체계를 점검했다.

갑진년 설 맞아 취약계층 지원 실천



우리 회사는 갑진년 설을 맞아 지역사회 이웃들과 온정을 나누기 위해 광주시각장애인연합회 및 광주 동구 소재 노인복지시설 등 광주와 전남 지역 취약계층과 사회복지시설 8개 기관에 모두 1,000만 원 상당의 지역농산물(쌀)을 전달했다. 우리 회사는 매년 명절 취약계층을 비롯한 보훈가족, 군 장병, 사회복지시설 등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 후원금과 위문품을 전달하고 있으며, 전국 60여 개 사업장별 맞춤형 지역사회공헌활동에도 앞장서고 있다.

태안사업처 복지기관에 후원금 전달



태안사업처는 지난해 12월 18일 태안군 소재 희망터전과 아이원에 지역상생경영의 일환으로 1,100만 원을 후원금으로 전달했다. 이는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로부터 연이어 수상한 안전관리 우수 포상금 중 전 직원들의 자발적인 모금을 통해 형성된 것으로, 재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된 기부이다. 아동 공동생활시설인 희망터전과 중증장애인을 위한 생활 및 공동 작업시설 아이원에 기부된 금액은 어린이와 장애인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사업소 뉴스

인재개발원 지역 복지시설에 기금 후원



인재개발원은 연말을 맞아 나주 지역에 있는 복지시설 세 곳에 후원금 총 500만 원을 전달했다. 후원금은 나주시양로원에 150만 원, 나주시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 150만 원, 빛가람아동쉼터(학대피해아동 지원시설)에 200만 원을 전달하며 지역사회 나눔경영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였다. 후원금은 노인 여가활동지원, 장애인 사회적응지원, 학대 피해 아동 교육지원 등 각 복지시설의 프로그램 운영 지원비로 활용될 예정이다.

안동사업소 안동시장 표창 수상



안동사업소 한마음봉사단은 지난해 12월 28일 개최한 '2023년 안동시종합사회복지관 사은의 날 기념행사'에서 지역사회 대상 사회공헌 활동을 통한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안동시장 표장을 수상했다. 안동사업소는 사업소 설립 이래 독거노인, 저소득층 아동 등 지역소외계층을 위해 생활안정비 후원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지속 협력하여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설 계획이다.

화성사업소 희망화성 어워드 표창 수상



화성사업소는 지난해 12월 22일 화성시청에서 주관하는 2023년 희망화성 어워드에 참석하여 화성시장으로부터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다년간에 걸친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으로 화성사업소는 2021년 소외계층 아동 후원을 시작으로 2022년 주거 취약계층 장애인 가구 집수리 등으로 활동을 확대했으며, 2023년에도 전년 사업의 미비점을 보완해 지속적으로 화성시청과 협업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군산사업소 안전우수상 수상



군산사업소 계전팀 채명성 팀장이 지난해 12월 28일 서부발전에서 주관하는 2023년 안전·품질 상생 페스티벌에 참석하여 서부발전 박형덕 사장으로부터 안전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다년간 고객 만족 및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으로, 앞으로도 군산사업소는 법에 규정된 의무사항 이행뿐만 아니라 직원 개개인의 안전의식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보령사업처 품질경영 유공 감사패 수상



보령사업처 강기석 처장은 지난 1월 2일, 한국중부발전 김호빈 사장으로부터 품질경영 유공 부문 감사패를 수상했다. 이는 한국중부발전이 품질경영 우수 협력기업 발굴을 위하여 2023년 한 해 동안 품질관리, 상생협력, 업무지원 등 회사의 이익에 공적있는 협력기업에 수여하는 감사패이다. 이번 감사패 수상을 통해 보령사업처는 품질경영시스템의 위상을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로 삼아 우수 품질관리를 통한 고객만족 실현에 앞장설 계획이다.

삼척사업소 희망을 담는 빨래바구니 개소식 참석



삼척사업소는 지난 1월 26일 근덕 '희망을 담는 빨래바구니' 개소식에 참여해 테이프 커팅, 시설관람 등을 시행했다. '희망을 담는 빨래바구니' 사업은 훌몸 및 거동 불편 어르신, 장애인, 한부모 등 취약계층의 이불, 대형 침구류를 무료로 수거하여 세탁·배달해 주는 사업으로, 생필품 구입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저렴한 가격으로 물품을 구입해 전달하는 구매 대행서비스와 일부를 묻는 우유배달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인천사업소 시무식 행사 개최



인천사업소는 지난 1월 2일 갑진년 새해 첫 출근일을 맞아, 2024년 시무식 행사를 개최했다. 주요 행사로 김홍연 사장 및 김종일 위원장의 신년사 대독, 안전활동 유품 및 안전명장 포상, 신년하례 등이 진행됐다. 또한, 6년 연속 중대재해 'Zero' 달성을 실현 및 산업재해 원천 차단을 위한 3無 지킴이(조장 이상 관리 감독자 23명) 위촉장 수여 및 노사합동 안전결의 다짐 대회가 시행됐다.

서울경기전력지사 현장 안전 보건 경영 활동



서울경기전력지사는 지난 2월 7일 지사 내 현장 안전활동과 사옥 시설을 점검하는 현장 안전 보건 경영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에 참석한 허상국 부사장은 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센터와 수원지점 직원들을 격려하는 한편, 안전의식을 강조하는 시간도 가졌다. 특히 업무보고 자리에서 송전설비 고장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직원들 스스로 안전의식을 갖도록 노력할 것을 강조하며, 작업 절차를 준수하고 관행적 업무를 금지하도록 당부했다.

KPS STORY 생생 참여 후기!

한전KPS의 다양한 소식을 전하는 격월간 사보 <KPS STORY>는 많은 직원분들의 참여로 이뤄집니다.
1+2월호 제작을 위해 기꺼이 시간내 주신 분들의 생생한 후기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우리는 최고



전수현 주임

우리 지역의 소외계층 아이들이 먹을 간식을 직접 준비하고 전달함으로써 지역사회와 소상공인분들께 도움이 되어 뿐만 아니라 봉사를 통해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어서 보람찹니다.

우리는 최고



정희현 직원

입사 후 한마음봉사단 일원으로 지역 사회에 공헌할 수 있어서 보람찹니다. 봉사활동을 하면서 나누는 즐거움과 함께 내면을 성장시키는 배움을 얻고 있어 오히려 감사한 마음입니다.

KPS 클래스



김명석 대리

사업소 내에 같은 사무실 분들과 새로운 경험을 해보는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덕분에 제가 만든 캘리그래피 달력과 함께 행복한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KPS 클래스



박은아 대리

집, 회사, 집으로 매일 출퇴근하며 다람쥐 첫바퀴 도는 일상을 살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그런 저에게 캘리그래피 체험은 일상에 즐거움을 주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KPS 클래스



하선재 직원

평소에 글씨 쓰는데 소질이 없어 걱정이 많았는데, 막상 붓을 들고 쓰는 것에 몰입하니 마음이 진정되더군요. 덕분에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KPS 클래스



이봄이 직원

캘리그래피로 마음을 담아 2024년 달력을 만들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직접 만든 달력 덕분에 올해를 더욱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가족 나들이



박웅 주임

가족과 함께하는 여행도 즐거웠는데, 여행의 순간을 사우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 기뻤습니다. 여러분도 기회가 주어지신다면 참여해 보세요!

캡스 밸런스

알쏭달쏭? 캡스의 선택은!



잠깐 휴식하며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는 시간!

KPS 직원들에게 도착한 다소 엉뚱한 질문에 쁍스 직원들은 뭐라고 답했을까요?
직장인이라면 고민하게 되는 밸런스 게임에 대한 쁍스의 선택과 이유를 들어봅니다.



2024년 당신이 계획하는 것은?

안정 제일! 2023년과 비슷한 루틴 지키기

51.7%

48.3%

절* 을 한해도
안정적으로 안전하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유관* 모든 게 서툴었던
신입사원을 벗어나
안정적으로 업무하는
성숙한 한전KPS인이
되고 싶어요.

오제* 실수를
하더라도 안주하기
보다 도전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송재* 새로운 업무를
맡아 진행 중인데
새로운 방식을
터득하면서 성장함을
느껴 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대성공!!

될 일이
최고예요!

도전은 늘 짜릿해! 새로운 도전해보기



2023년으로 회귀한 당신! 바꾸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때 내가 왜 그랬지? 치명적인 실수 지우기

2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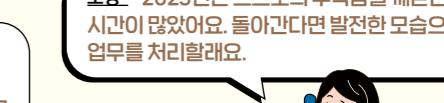
76.8%

빅효* 이불킥하게 되는 순간이
많았어요. 돌아간다면 경솔했던
과거를 다지우고 싶어요.

오마나!
박영* 2023년도에
주식을 시작했죠.
매수하던 과거의
저를 멈추고 싶네요.



이준* 흑역사도
지우고 싶지만
그보다 업무적으로
좀 더 보강해서
보탬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큽니다.



오설* 2023년은 스스로의 부족함을 깨닫는
시간이 많았어요. 돌아간다면 발전한 모습으로
업무를 처리할래요.